



특집—“종말은 어떻게 오는가”

주일우·문순표·조효원·백옥인·김대산·전승화·김형식

『쓰레-문학의 이름으로』 제12호 발행

문학실험실 펴냄 / 140*240 / 468쪽 / 값 18,000원 / ISSN 2465-7956

“종말은 어떻게 오는가” 특집으로 엮어

반년간 문학전문지 『숲-문학의 이름으로』 통권 제12호가 나왔다. 이번 호 특집의 주제는 “종말은 어떻게 오는가”이다. 삼시간에 전 세계를 뒤덮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과 위협에 인류 전체가 신음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종말에 관한 사유는 인간 삶의 근원적 조건을 깊게 반추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난 연말, 과학자들이 만든 ‘종말 시계’는 앞으로 남은 인류의 시간이 100초임을 예고했다. 돌이켜보면 코로나19 사태의 발생과 함께 종말에 대한 담론들은 다양한 형식으로 번져나갔다. 그것이 응집된 중심 주제로 떠오르지 않은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는데, 아무튼 삶의 발전적 변화에 대한 전망이 막히고 혹시라도 존재하는 변화의 전망이 주로 공포와 불안만을 촉발할 때 종말에 관한 관심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번 특집 ‘종말은 어떻게 오는가’는 긴 역사를 가진 종말론으로부터 지금-여기서 감지되는 종말의 예감과 그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펼쳐 보이고자 했다. 물리적 과학으로부터 신학·철학·사회학 등을 거쳐 상상적 문학에 이르기까지... 그것은 생명체로서의 인간의 멸종이나 사회적인 것의 소멸을 의미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구성해온 정치·경제적 체제의 차원에서의 종말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것은 또한 인간 실존을 향한 가장 근원적 질문이며 신과 구원의 문제인 동시에, 지연되어야 할 사건일 수도 있고 새로운 탄생을 위한 기다림의 대상일 수도 있다. 때로 종말은 불가능한 것이어서, 모든 것이 이대로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절망이 고개를 들기도 한다. 『편집의 말』 중에서

1. 겨우 존재하는 것들의 운명_과학적 시각에서 본 종말 | 주일우 (과학평론가)
2. 종말론의 기원과 역사_종말론에 대한 사유의 매듭들 | 문순표 (철학자)
3. 약속의 땅과 내전의 끝_종말의 정치신학 | 조효원 (문학평론가, 서강대 교수)
4. 사회의 종말_디지털 시대 인간 조건의 변화와 사회적인 것의 붕괴 | 백옥인 (사회학자, 서울과기대 교수)
5. 종말을 향하여_종말의 역설과 비의秘義 | 김대산 (문학평론가)
6. 종말의 예감과 종말을 방해하는 구조_‘설명할 수 없는 것’에 토대를 둔 사무엘 베케트의 문학 세계 | 전승화 (불문학자, 경북대 교수)
7. 좀비가 종말에 대처하는 몇 가지 방식 | 김형식 (문화평론가)

특집과 함께 : 현장의 목소리: 종말의 상상과 사념

1. 영원히 죽지 않고 | 강성은 (시인)
2. 종말은 가볍고 투명하게 | 김애란 (소설가)
3. 늑대들의 밤이 온다 | 백민석 (소설가)
4. 모노리스(Monolith) | 이기호 (소설가)
5. 소리 없는 세계의 딱따구리 | 장수진 (시인)

시와 소설 이번 <시와 소설> 난은, 지금 이 시대 상황을 보면 하나의 역설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다. 중견에서 신진에 이르는, 개성적인 다섯 시인 김정환·진은영·이영주·김소형·이철빈과 네 소설가 이신조·정용준·이갑수·이원석의 신작 작품은 문학 읽기의 즐거움을 가져다줄 것이다.

텍스트 실험 공간 : 도예인의 거듭되는 악몽과 실종에 대한 가설 심의 결과 <텍스트 실험 공간>에서 정한아 시인은, 그의 「업보 경찰 행정관 나사투의 비망록」(2016년)에 이어 또 하나의 상호-텍스트적 실험을 보여준다. 작가의 주석을 따라가며, 우리는 기꺼이 이 상호-담론적인 즐거운 놀이에 빠져들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작은 기획 : 연극의 막다른 자리에서 그 너머를 탐색하며 이번 호 <작은 기획>은 집합 금지 등, 너무나 큰 제약 속에서만 가능해진 이 시대에 공연이란 무엇인가, 공연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과 그 해답을 담고 있다. 연극의 현실과 실행과 관련해, 그 전환점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 지금 연극의 현실은 어떠한가, 어떤 연극적 전환이 가능한가, 연극의 본질에 비추어 연극인이 지켜야 할 자세는 무엇인가 등 제반 문제를 연극평론가 조만수, 극작가이자 연출가인 박혜성·정진세의 글을 통해 살펴본다.

시시비비 : 커뮤니케이션 불평등의 문제들 <시시비비> 난에서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장 안에서의 불평등 문제를 제기하고자 했다. 커뮤니케이션의 장이 미증유의 규모로 확대되면서 새로운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문제는 늘 주목받는 논의 거리(익명성의 허용, 가짜 뉴스 통제 문제 등)가 되어왔다. 이와 관련해 언론학자 채영길은 누가 이 장을 장악하고 누가 여기서 소외되는가라는 아주 중요한, 그러나 지금까지 크게 부각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 고찰한다.

그때 그 실험 <그때 그 실험>에서는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서영인 씨의 「'난장이' 사후」는 조세희 소설의 실험성을 지금까지 흔히 주목되어온 기법적 차원에서 찾기보다, 한 세대의 끝과 새로운 세대의 등장을 '난장이'라는 상징어로서 포착해내고 있다.

지금 이 언어 <지금 이 언어>에는 김행숙·이기성·신영배의 근작 시집들에 관한 오현경 씨의 비평을 신는다. 또한 <문학실험실 신간 리뷰>에는 윤해서의 중편소설 『그』와 한유주의 연작소설 『숨』을 다루는 황예인·윤경희 씨의 비평을 더한다. 끊임없이 자기 갱신을 거듭하는 세 중견 여성 시인의 면모와 한국 소설의 전위적 정신을 대표하는 보다 젊은 여성 소설가의 새로운 결실을 일별할 수 있게 좋은 기회가 되리라 믿는다.

차례

특집 : 종말은 어떻게 오는가

1. 겨우 존재하는 것들의 운명_과학적 시각에서 본 종말 | 주일우
2. 종말론의 기원과 역사_종말론에 대한 사유의 매듭들 | 문순표
3. 약속의 땅과 내전의 끝_종말의 정치신학 | 조효원
4. 사회의 종말_디지털 시대 인간 조건의 변화와 사회적인 것의 붕괴 | 백옥민
5. 종말을 향하여_종말의 역설과 비의秘義 | 김대산
6. 종말의 예감과 종말을 방해하는 구조_‘설명할 수 없는 것’에 토대를 둔 사무엘 베케트의 문학 세계 | 전승화
7. 좀비가 종말에 대처하는 몇 가지 방식 | 김형식

특집과 함께 : 현장의 목소리: 종말의 상상과 사념

1. 영원히 죽지 않고 | 강성은
2. 종말은 가볍고 투명하게 | 김애란
3. 늑대들의 밤이 온다 | 백민석
4. 모노리스(Monolith) | 이기호
5. 소리 없는 세계의 딱따구리 | 장수진

시와 소설

88 외 2편 | 김소형
謹弔가 날씬한 고대 외 2편 | 김정환
수문장 | 이갑수
조이트로프 안에서 외 2편 | 이설빈
봄밤의 번개와 질소 | 이신조
사제의 개 외 2편 | 이영주
까마귀 클럽 | 이원석
적막하다 | 정용준
쓰지 않은 것들 외 2편 | 진은영

텍스트 실험 공간

도예인의 거듭되는 악몽과 실종에 대한 가설 심의 결과 | 정한아

작은 기획 : 연극의 막다른 자리에서 그 너머를 탐색하며

코로나 이후의 연극 하기의 조건 | 조만수
기술의 변화와 비대면 연극 | 박해성
연극의 연습, 아니 연습의 연극_코로나 시대, 코로나 연극에 대한 불평과 불만 | 정진세

시시비비

커뮤니케이션 불평등의 문제들 | 채영길

그때 그 실험

끝'난장이' 사후死後_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 서영인

지금 이 언어

내면의 책과 자기 참조의 쓰기_김행숙·이기성·신영배의 근간 시집들 | 오연경

문학실험실 신간 리뷰

한동안을 넘어서는 순간들_윤해서 중편소설 『그』 | 황예인0

유령 개와 너의 다음 이야기를 기다릴게_한유주 연작소설집 『숨』 | 윤경희

이번 호 필자

강성은 | 시인. 1973년 경상북도 의성에서 태어나, 서울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를 졸업했다. 2005년 『문학동네』를 통해 등단하여, 시집 『구두를 신고 잠이 들었다』 『단지 조금 이상한』 『별일 없습니다 이따금 눈이 내리고요』 『Lo-fi』를 펴냈다.

김대산 | 문학평론가. 1974년 경상북도 의성에서 태어나,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철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비교문학전공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2006년 『문학과사회』를 통해 등단하여, 평론집 『달팽이 사냥』을 펴냈다. 현재 본지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김소형 | 시인. 1984년 서울에서 태어나, 숭실대학교 인문대학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했다. 2010년 『작가세계』를 통해 등단하여, 시집 『스투프』 『좋은 곳에 갈 거예요』를 펴냈다.

김애란 | 소설가. 1980년 인천에서 태어나,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극작과를 졸업했다. 2002년 '대산대학문학상'을 통해 등단하여, 소설집 『달려라, 아비』 『침이 고인다』 『비행운』 『바깥은 여름』과 장편소설 『두근두근 내 인생』, 산문집 『좋은 이름』 등을 펴냈다.

김정환 | 시인. 1954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영문과를 졸업했다. 1980년 『창작과비평』을 통해 등단하여, 『지울 수 없는 노래』 『황색예수전』 『회복기』 『좋은 꽃』 『순금의 기억』 『드러남과 드러냄』 『거룩한 줄넘기』 『소리 책력』 『개인의 거울』 등 22권의 시집과 『삶의 시, 해방의 문학』 『어떤 예술의 생애』 등 7권의 평론집·산문집, 그리고 다수의 음악 교양서·역사 교양서를 펴냈다.

김형식 | 문화평론가. 1986년에 태어나,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화연구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2014년 『문화/과학』을 통해 문화평론가로 등단하여, 저서 『춤비학: 인간 이후의 존재론과 신자유주의 너머의 정치학』을 펴냈다.

문순표 | 철학자. 1978년에 태어나, 독일 포츠담대학교 철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서구 종말론』 『너는 너의 삶을 바꿔야 한다』 등 다수의 번역서를 펴냈다.

박해성 | 극작가·연극연출가. 1976년에 태어나,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을 졸업했다. <스푸트니크> <코리올라너스> <믿음의 기원 2: 후쿠시마의 바람> <당신이 알지 못하나다> <프로토콜> <널 위한 날 위한 너> 등의 작품을 연출했다.

백민석 | 소설가. 1971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를 졸업했다. 1995년 『문학과사회』를 통해 등단하여, 『16민거 나팔거나박물지』 『버스킹』 등 5권의 중단편집과 『헤이, 우리 소풍간다』 『목화밭 엮기전』 『교양과 광기의 일기』 등 8권의 장편소설, 그리고 『헤밍웨이』 등 3권의 산문집을 펴냈다.

백옥인 | 사회학자. 1957년에 태어나, 한신대학교 인문대학 독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디지털이 세상을 바꾼다』 『한국사회운동론』 『정보자본주의』 『디지털 데이터·정보·지식』 『인터넷 빨간책』 『번안사회』 등의 저서를 펴냈다.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육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영인 | 문학평론가. 1971년에 태어났다. 2000년 『창작과비평』을 통해 등단하여, 평론집 『충돌하는 아이들의 심층』 『타인을 읽는 슬픔』 『문학의 불안』와 문학 연구서 『식민주의와 타자성의 위치』를 펴냈다. 현재 국립한국문학관에 재직 중이다.

오연경 | 문학평론가. 1974년에 태어나,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9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하여, 『새로 쓰는 현대시 교육론』 『국어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국어 교과서 작품 읽기: 고등 시』 등을 공저로 펴냈다. 현재 고려대학교 교양교육원 전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윤경희 | 문학평론가. 1973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파리8대학 비교문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2008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했고, 현재 본지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갑수 | 소설가. 1983년 서울에서 태어나, 동국대학교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했다. 2011년 『문학과사회』 신인문학상을 통해 등단하여, 소설집 『편협의 완성』을 펴냈다.

이기호 | 소설가. 1972년 강원도 원주에서 태어났다. 1999년 『현대문학』을 통해 등단하여, 소설집 『최순덕 성령 충만기』 『갈팡질팡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김박사는 누구인가?』 『누구에게나 친절한 교회 오빠 강민호』와 장편소설 『사과는 잘해요』 『차남들의

세계사』를 펴냈다. 현재 광주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설빈 | 시인. 1989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2014년 『문학과사회』 신인문학상을 통해 등단하여, 시집 『올타리의 노래』를 펴냈다.

이신조 | 소설가. 1974년 서울에서 태어나, 명지대학교 문예창작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1998년 『현대문학』을 통해 등단하여, 소설집 『나의 검정그물스타킹』 『새로운 천사』 『감각의 시절』 『다른 소년』과 장편소설 『기대어 앓은 오후』 『가상도시백서』 『29세 라운지』 『우선권은 밤에게』 『크리에이터』를 펴냈다. 현재 한양여자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영주 | 시인. 1974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2000년 『문학동네』를 통해 등단하여, 시집 『108번째 사내』 『언니에게』 『차가운 사탕들』 『어떤 사랑도 기록하지 말기를』 『여름만 있는 계절에 네가 왔다』를 펴냈다.

이원석 | 소설가. 1994년 경상남도 진주에서 태어나, 2019년 『문학과사회』 신인문학상을 통해 등단했다.

장수진 | 시인. 1981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예술대학교 연극과를 졸업했다. 2012년 『문학과사회』 신인문학상을 통해 등단하여, 시집 『사랑은 우르르 꿀꿀』을 펴냈다.

전승화 | 불문학자. 1973년에 태어나,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파리7대학에서 사뮈엘 베케트 연구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게 어떤지』 『이름 붙일 수 없는 자』 등의 역서를 펴냈으며, 현재 경북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정용준 | 소설가. 1981년 광주에서 태어나, 조선대학교 인문대학 러시아어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문예창작학과를 수료했다. 2009년 『현대문학』을 통해 등단하여, 소설집 『가나』 『우리는 혈육이 아니냐』와 장편소설 『바벨』 『프롬토니오』 『유령』 『세계의 호수』 『내가 말하고 있잖아』를 펴냈다. 현재 서울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정진세 | 극작가·연극연출가. 1980년 서울에서 태어나,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을 졸업했다. <액트리스 원> <전 인민의 심장이 하나로 뛰는> 등을 연출했으며, <그름,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 <햄릿> 등을 각색하였고, 『환승+극장』을 공저로 펴냈다. 현재 극단 <문>의 연출가로 활동 중이다.

정한아 | 시인. 1975년 울산에서 태어나, 성균관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6년 『현대시』를 통해 등단하여, 시집 『어른스런 입맞춤』 『울프 노트』를 펴냈다.

조만수 | 연극평론가·드라마터그. 1967년에 태어나,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프랑스 낭시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동시대 연출가론 1』 『세계고전 오디세이 1』 등의 공저와 역서 『무대』를 펴냈다. 현재 충북대학교 프랑스언어문화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조효원 | 문학평론가. 1981년 태어나,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독어독문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뒤 미국 뉴욕대학교 독어독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 『부서진 이름(들)』 『다음 책』과 번역서 『유아기와 역사』 『빌라도와 예수』 『바울의 정치신학』 『에코칼리아스』 『정치적 낭만주의』 등을 펴냈다. 현재 계간 『문학과사회』 편집 동인으로 활동 중이다.

주일우 | 과학평론가·출판인. 1968년 태어나, 연세대학교 생화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에서 석사학위를,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에서 환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역서로 『다윈의 대답 3: 낯은 정과 기른 정은 다른가』, 편저로 『지식의 통섭: 학문의 경계를 넘다』 등을 펴냈으며, 현재 이음출판사 대표로 재직 중이다.

진은영 | 시인. 1970년 대전에서 태어나,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0년 『문학과사회』를 통해 등단하여, 시집 『일곱 개의 단어로 된 사전』 『우리는 매일매일』 『흠쳐가는 노래』와 저서 『순수이성비판, 이성을 법정에서 우다』 『니체, 영원회귀와 차이의 철학』 등을 펴냈다.

채영길 | 언론학자. 1972년 태어나, 한국외국어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텍사스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 『커뮤니티 미디어 이론과 실천』과 공저 『미디어와 공동체』 『1987년 민주화 이후 30년, 한국의 언론과 언론 운동 성찰』 등을 펴냈으며,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언론정보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다.

황예인 | 문학평론가·출판인. 1983년에 태어나,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현재 출판사 스위밍풀 대표로 재직 중이다.